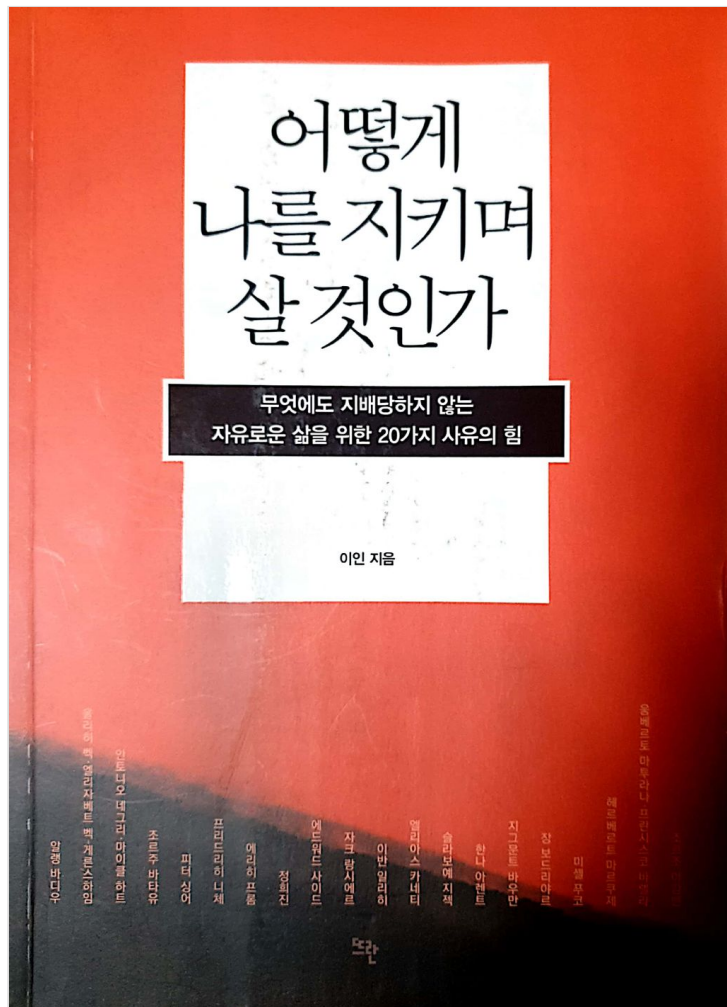


# 나를 지키자 읽기(미셸 푸코)

모임이 끝난 후 각자 소감을 적기(우리의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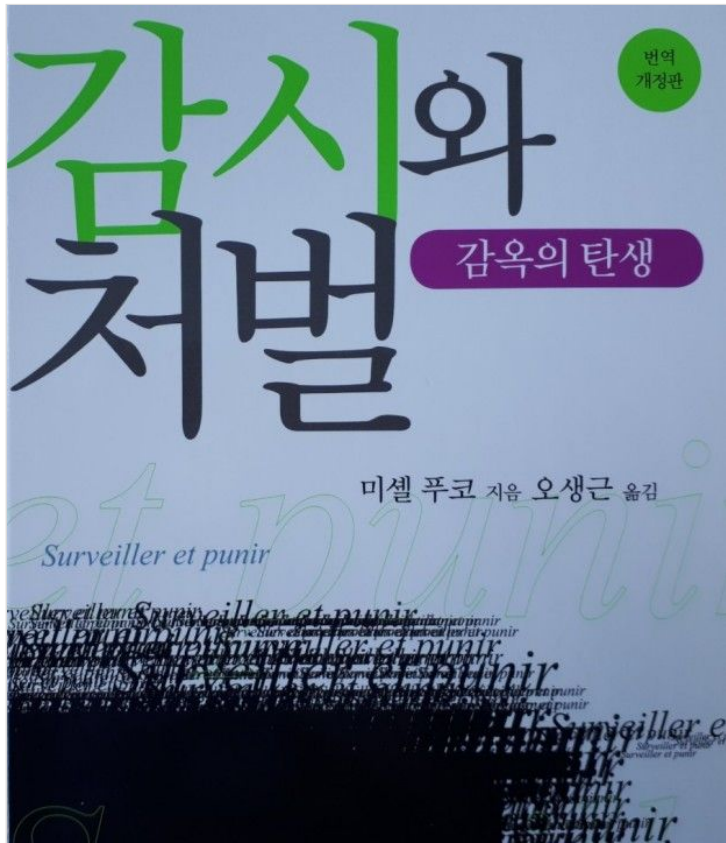
김윤주 21/01/03 02:33

## 책제목



### 자기 감시로부터의 자유

미셸푸코



## 고지연

## 권태임

### 학교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 교사인가?

책도 아직 없고 오늘 부분을 듣지도 못해서 주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모른다. 뒷부분에서 나는 이야기 중에 교사의 자료 선택에 관한 것이 있어서 나는 자료 선택을 비롯한 여러 측면에서 얼마나 소신있게 교육이랄 걸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은 학생도 학부모도 아니고 동료교사인 거 같다. 학생도 보람을 느끼고 학부모도 감사해할 활동이지만 옆 반 선생님이 혼자서만 그런 거 하면 어떡해 라고 말할까봐 못하는 활동들이 많은 거 같다. 하향평준화, 학교는 많은 부분에서 그걸 지향할 때가 참 많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함께 못할 거면 아무도 하지 말아야 하는 암묵적 규칙이 있다. 한탄스럽다.

하향 평준화에 뜨끔 합니다. ^^ 저는 요즘 아이들 눈치를 가장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의 눈이 제일 무섭습니다. ^^;; -익명

아직도 하향평준화 분위기인거죠... 같이 원원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다면 내가 용기를 내고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겠죠.. -익명

# 김윤주

## 학교에서도 교사가 학생 한 명을 벌주면 이후부터는 교실 분위기가 조용해진다(p63)

교사 초임 시절 저 말을 선배 교사들에게 꽤 들었다. 초장에 잘 잡으면 1년이 편안해진다고... 아이들에게 유한 교사들의 반은 어수선하고 무질서해 보였다. 질서있고 정돈된 학급이 좋은 학급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아이들이 존재하지 않는 학급이었다. 개인의 삶은 없고 학습 로봇 같은 아이들을 나도 모르게 원했고 아이들도 그렇게 길들어졌던 것이다. 이 자본주의를 유지하는 권력의 논리를 받아드려 아이들을 길들이고 있는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학교가 원래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성찰하게 되었다. 교사 역시 자기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스스로를 감시하며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나 교사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한다면 학교에서 스스로 성찰하는 인간을 길러내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너무 낙관적인걸까?

*아니요..선생님의 낙관성이 필요합니다. ^^ 학교에서 수업시간에 교사가 할 수 있는 한, 학생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성찰하는 인간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교사도 더 자유로와 질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성으로 비판하되 의지로 낙관하라..우리가 의지를(자유의지) - 익명*

*자유의지를 발현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봅니다. 기운내심소^^ - 익명*

# 김택신

자기 감시로부터의 자유란 무엇일까? 사실 일벌백계를 통한 눈치, 주눅, 불안, 절망 따위가 나쁘다고 여기지만 아주 미약하고 은밀하게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가정, 학교, 사회, 국가.. 어쩌면 필요악?이라고 합리화가 가능할만큼. 눈치, 불안, 절망 따위는 모두 밖으로부터의 압력에 의한 심리적인 현상이다. 이런 심리적 고통은 권력자들에게는 비용도 노력도 필요 없는 자체 감옥으로 거대 음모가 성공을 거두게 되는 지름길이 된다. 이러한 자기 감시로부터는 벗어나야 한다.

그러나 자기 감시는 필요하지 않을까? 신독('중용', '대학'), 양심, 성찰 따위는 자기 감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내면으로부터의 자기 비판을 거치며 방종이 아닌 자유함을 얻기 위해 스스로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 스스로 감독하는 것은 감옥이 필요하지 않다.

교육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인간해방을 가로막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에 맞서며 목적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철탐공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불합리한 감옥을 깨고나와 자유로운 사람이 되도록 힘을 길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CCTV는 어떤 의미일까요? 어디서든 너의 행동을 지켜보고 있으니 조심해서 행동하라? CCTV가 없는 곳에서는 네 흑심을 드러내도 증거가 없으니 마음 놓아라? CCTV가 있던 없던 고품격의 인격을 갖추어라? ... 신독, 양심, 성찰의 방법을 기계에 맡기는 일은 사람다움의 힘을 포기하는 것일 수 있다.

# 김혜련

# 김혜숙

# 남진희

## 탈학교가 희망이 될까

주위에 학교를 떠난 사람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공통 특징은 주체적인 삶을 산다는 거다. 흔들리고 흔들려도 자신의 길을 산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어떻게든 납득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나도 아이들을 초등학교 이후엔 아이들의 선택에 따라 탈학교를 할 것인지, 공교육의 흐름을 따라갈 것인지 결정하라고 할 맘도 있는데, 학교에서 흔들릴 거라면 가정에서 지지해주고 든든한 공동체(홈스쿨러 등)를 만나서 스스로 설 시간을 먼저 주는 것이 어떨까 싶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도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이 과연 안전한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든다.

*전 학교가, 교육기관이 다양해지는 건 찬성입니다. 아이들은 다양하니까.. 게다가 우린 정말 오랫동안 교육이 학교가 자기들의 이데올로기를 학생들에게 강요하는 정치권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고 탈학교가 절대답도 - 익명*

*아니라는 생각. 지금 우리처럼 그 대안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지 않으니깐요. 윤주쌤 말대로 그마저도 등급화되어 또다른 등급적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니까.. - 익명*

*전 누구나 아무나 다니는 지금 공교육이 바뀌어야 하고 그 첨병에 우리가 서 있다는 생각입니다. - 익명*

## 박근영

### 나를 때린 한마디..

대학동기였다. 그닥 친하지 않았지만, 인사정도는 하는 친구..나는 임용을 봐서 발령을 바로 받았고. 그 친구는 연속 탈락하여 결국 사립학교로 갔다가 거기서 짤렸다. 배이상헌샘과는 다른 주제지만..아마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주제로 했던 것 같다. 아이의 얘기를 들은 자유총연맹소속인가 하는 학부모님이 문제제기를 하고 친구는 해고당했다. 법은 재단의 편이었다. 아니다 더 정확히는 교과서대로 가르치지 않는 교사는 처벌받는다는 것이었다. 난 교과서대로만 가르치는 교사가 되었다. 10여년이 지난 뒤 우연찮게 연락이 되어 만났다. 그친구는 강원도에서 대안학교의 두명뿐인 교사 중 한명이었다. 우리 동기들중에 공립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너무 재정상태가 열악한 그 친구네 대안학교를 후원하기 위해 모임을

*쓰다가 만 거임? 궁금합니다. 뒷 이야기. - 익명*

## 박인보

도처에 있는 수없이 많은 CCTV, 블랙박스, 감시카메라... 그리고 내가 접속한 곳마다 남는 각종 기록들... 현대 사회에서는 과거에 비해 훨씬 더 정교하게 감시가 이루어진다. 이제는 보이지 않는 판-옵티콘들이 널려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강요받는다.

그러나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 감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감시의 순기능에 대한 것도 생각해본다.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떠도는 네트워크는 권력자들에게 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고 과거에 비해 그것의 은폐가 쉽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정보들은 권력이 함부로 행동할 수 없게 규제하는 순기능도 보여준다. 수없이 많은 정보가 공유되는 사회에서는 우리가 거꾸로 권력을 감시할 수도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박근혜 탄핵의 경우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초고속 정보공유를 통해 권력자에 대한 감시가 작동하지 않았다면 탄핵은 불가능했을 수도 있다. 코로나 확진자들의 동선 정보 공개를 통한 코로나 확산 예방활동도 어찌보면 감시의 순기능일 수 있다.

민주적인 교실은 교사가 학생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공간이 아니라 학생이 교사를 감시하며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 있는 교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학급을 운영하는 방식이나 언행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제기를 하도록 이야기해 왔다. 나 스스로 학생들의 감시 속에 옥죄어 지는 느낌도 있었으나 그것은 오히려 학생들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그것은 학생들에게 나의 말발이 먹히게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학교가 사회의 축소판이라고 생각할 때 위의 내용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권력자들은 항상 국민들이 자신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진보든 보수든 대기업이든 권력을 가진 자가 내로남불식의 태도가 아닌 국민들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할 때 신뢰가 회복되며 그렇지 않으면 권력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건전한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회를 꿈꾸어 본다..

## 박서진

### 송윤정

난 튀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엉뚱한 질문과 대답을 허용하지 않는 제도권 교육에서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반항이다. "남들이 안 하는 질문과 대답을 해보라구!!"

학교의 두 가지 기능 중 하나가 문화의 존속과 권력의 보존이라면 나머지 하나가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인간의 양성이다. 학교는 고인물이면서 흐르고 있다. 안 그럼 썩지 않겠는가! 그 양쪽의 비율을 적절히 조율하여 썩지 않는 정도...학교는 그런 곳이다.

오늘 논의에 나온 성평등교육, 성교육은 교사로서 다루기 힘든 주제가 되었다. 열성적으로 교재를 찾았다가 성비위교사가 되고 싶은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교과서에 나온대로 적당히 빙빙 에둘러 표현하고 넘어간다. 어떤 교재를 쓰든 수치심을 느끼는 아이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당장 수업에서 배제되고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교사의 교육권을 심하게 위축시킬 수 밖에 없다. 난 이게 감시로 느껴졌다.

예전에 교사가 한 학생을 본보기로 때리면 다른 모든 아이가 말을 듣는 시대가 있었다. 지금은 그런 교사가 있다면 뉴스감인데...요새 우리들은 더 세련된 감시를 하고 있다. 모범생이나 성적우수아를 칭찬하여 대다수의 아이들이 그 길을 따라 걷게 만든다. 자퇴하고 홈스쿨링을 한다거나, 대안학교를 간다 해도 꿈쩍하지 않고 싶은데 난 그게 안 된다. 자초지정을 들어보고 학교에 남기려 설득도 해보았다. 충실한 직업인을 만들려고 나도 모르게 감시레이더를 작동한 게 아닐까 생각했다. 난 학교의 간수인가? ㅎㅎ

## 하은주

### 내 것 같지 않은 내 안의 그것~! 감시인가, 자율인가?

공개 처형 당하는 범죄자를 직접 본 사람은 그것을 이야기로 듣는 것보다 훨씬 충실히 복종할 것이다.

과거 나의 선생님들은 학기초에 기선제압을 하느라 그러셨는지 항상 누군가를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심하게 혼내고 그 아이를 희생양으로 우리는 조용해 졌다.

처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다. 권력의 과시, 복종의 말없는 요구, 두려움의 이식이었다.

그 결과 이제 우리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고 누가 만들어 놓은 율음인지도 모르면서 그 율음을 눈치보며 수행해간다.

과거 여러 사람의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복종하도록 만들었다면 현대의 교묘한 시스템은 다른 사람도 필요로하지 않는다. 잘 사회화된 훈육된 사람은 남의 눈치도 안본다. 오직 자기의 눈치만 본다. 어쩌면 이런 경지가 우리가 부러워 하지않는 성인의 경지,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의 도덕의 6 단계인지도 모른다.

그 경지는 다른 어떤 사람이나 법이아니라 오직 자신의 눈치를 보는 사람인데 우리는 이런 경지를 우리는 자유인 또는 성인의 경지라 부른다.

자, 그러면 푸코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 경지에서 행동할 때의 자신의 상태에 달려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행동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감성적 온전히 나의 것이라는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양심대로 행동할 때 그것은 온전히 나의 것인가? 를 계속 물어야 한다. 그것을 획득하는 과정은 철학이 없어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길이지 않을까 싶다.

그러면서 양심에 따라 살아갈 때 기쁘냐, 행복한가, 즐거운가, 아니면 양심에 따라 행동은 하지만 못내 쫓기거나 찔찔한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은가를 잘 살펴 봐야한다. 많은 지식인들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 이선

성교육의 접근법으로서 보수주의와 자유주의를 종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보수주의는 성의 생식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성의 쾌락적 가치는 간과한다.

자유주의는 보수주의에 비해 성의 쾌락적 가치에 초점을 둔다.

나는 성의 인격적 가치를 중심으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종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성은 생식을 위한 것만도 아니고, 쾌락을 위한 것만도 아니다. 성은 무엇보다도 인간과 인간의 인격적 존중과 만남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인간적 존중과 만남을 기준으로 생식적 가치와 쾌락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읽을 책. 예전에 읽었던 성윤리. 성의 쾌락적 가치를 일정 부분 평가했다고 19금 딱지가 붙었던 선생님의 책. 다시 읽어 봐야겠다. 푸코는 전집을 소장할 가치가 있는 학자라고 생각한다. 물론, 푸코는 대화편을 많이 읽던 사람이었으니 플라톤 전집을 읽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